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광주·전라 청년 20만+창조 일자리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로 하루종일 붐볐다. 이번 박람회에는 효성, 현대·기아차, GS, LG 등 대기업과 계열사·협력업체 81곳, 그리고 지역 중견·강소 기업 48곳 등 모두 129개사가 참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상 초유의 실업난 ... 광주서 열린 대기업 일자리박람회

광주·전남 청년 구직자 1만명 몰렸다

효성, 현대·기아차, GS 등 지역창조센터 기업 등 129개사 참여
50명 현장 채용·400여명 1차 면접 통과...온라인 간접채용도

“우리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어디 있나요.” 사상 초유의 실업난 속에서 모처럼 대기업이 대거 참가하는 일자리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리자 지역 청년 구직자 1만 여명이 몰렸다. 특히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 대기업이 주최한다는 소식에 창조경제를 배우려는 학생은 물론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년층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박람회장은 하루종일 구직·구인 인파로 붐볐다. <관련기사 14면>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광주·전라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박람회'에는 효성, 현대·기아차, GS, LG 등 대기업을 비롯한 계열사와 협력업체 81곳 그리고 지역 중견·강소기업 48곳 등 모두 129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등이 참석해 기회를 축하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식 축사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지표보다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지 여부로 경기흐름을 판단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9월 청년실업률은 7.9%로 올해 들어 가장 낮다”면서 “특히,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청년고용률이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동급생들과 함께 박람회를 찾았다는 송모(17)양은 “인론을 통해 창조경제에 대해 자주 들었지만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며 “창조경제관을 찾아 창조경제의 의미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일을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행사장에 설치된 대기업 부스에는 면접을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순서를 기다리는 구직 인파가 몰렸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차분히 면접을 기다리는 청년구직자들은 상당하는 인사담당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견·강소기업도 적극적인 구인에 나서 분주히 움직였다. 박람회 이벤트 행사로 진행된 ‘한국의 폴포츠 컴퍼니 소년 최성봉 초청 특강’과 ‘JOB 콰터넷 퀴즈대회’, ‘직업정보 PC검색대회’도 참가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 밖에도 인사담당자가 들려주는 취업 노하우 설명회와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청년 창업특강이 진행된 취업세미나관은 실질적인 구직 팁을 배우기 위한 구직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난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에 이어 두번째로 박람회를 찾았다는 2년차 취업준비생 원모(30)씨는 “효성 등 접하기 어려운 대기업을 찾아 면담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사무직이나 해외지원 업무를 맡아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람회에서는 50명이 현장 채용되고, 400여명이 1차 면접을 통과했다. 온라인 구인 및 간접 채용에도 50개사가 참여, 300여명이 입사 서류를 제출해 채용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 ‘규제완화’ 뒤로가는 나주시 ▶6면
- 유라시아 대장정 ‘청춘열차’ ▶18면
- 최진철호 U-17 월드컵 16강 ▶20면

새정치 광주·전남 국회의원 16명 전원 내년 총선 ‘오픈 프라이머리 찬성’ 서명 혁신위 공천방식 집단 반발

전북도 대부분 동참...파문 확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내년 총선 공천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찬성한다는데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호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당내 주류 진영과 혁신위가 주도한 내년 총선 공천 방식에 집단 반발한 형국이다.

21일 광주일보가 광주·전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천노-비노, 주류-비주류 할 것 없이 16명 전원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하고 서명했다. 최규성 의원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범제화를 제안하며 서명을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전과자만 아니라면 누구나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된다면 혁신위가 현역의원 20% 물갈이를 위해 마련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의 평가 자체가 없던 일이 되며 전체 지역구의 20% 내에서 가능한 전략공천도 원천 차단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찬성 이유로 평가위 등의 인위적인 물갈이를 통한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략공천 등에 따른 당내 특정 세력에 대한 출세기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총선때만 되면 반복되는 인위적 물갈이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 오히려 심플하다”며 “여기에 당내 경선에 비해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치 신인에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질적으로 인지도와 조직력에 앞선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한데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의 물갈이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이같은 전원 찬성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호남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혁신위가 제시한 총선 공천안에 사실상 정면 반발함에 따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5차 회동이 22일 오후 열리게 됨에 따라 이날 오전 개최하기로 했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성진,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

세계 최고 권위...한국인 최초



피아니스트 조성진(21)이 세계 최고 권위의 폴란드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16면> 프레데릭 쇼팽 협회는 21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7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결선의 최종 심사 결과 조씨가 1위(상금 3만 유로)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조씨는 폴로네이즈 최고 연주상(상금 3000유로)도 함께 받았다. 폴란드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인 프레데릭 쇼팽을 기려 1927년 시작된 쇼

팽 콩쿠르는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벨기에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6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조씨는 11세이던 2005년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후 2008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했으며 2011년에는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에 입상했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2012년부터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수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나는 것이 되게 하고 속에서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